

이슬람 여성의 지위*

김 용 선

열악하였던 이슬람 이전시대의 아랍 여성의 지위가 이슬람의 출현으로 개선되었고 코란은 여성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남녀평등이 본질적으로 인간의 바탕이라고 코란에 의해 확인되지만 생활기능상으로 남녀가 구분되어 여성은 남성의 종속적 위치에 놓이게 되었음을 코란은 시사하고 있다.

이슬람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1부4처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코란은 실질적으로는 1부1처제를 장려하고 있다. 결혼은 사회계약으로 간주하여 당사자인 여성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혼은 남성이 일방적으로 되풀이하여 선언함으로써 성립된다. 여성의 이혼요구는 주어진 한계 내에서만 이루어진다. 이혼하거나 남편을 사별한 여성은 일정기간을 경과한 후에야 재혼할 수 있다.

여성의 “베일” 착용 관습은 사회생활로부터의 여성의 배제와 남녀 격리와 연관되어 이슬람 사회에서의 여성의 위치를 가능하게 한다. 무용한 남녀의 접촉을 피하도록 권하는 코란구절에서 비롯된 “베일” 착용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코란의 한 구절과 맞물려 이슬람에서의 여성의 위치에 대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슬람 여성의 지위는 여성에 관한 코란구절의 해석과 시대적·지역적 관행에 따라 평가해야 할 것이다.

I. 서론

코란은 7세기초엽 아라비아반도에서 예언자 무함마드가 이슬람 공동체의 종교 및 정치지도자로 활약한 610-632년 동안에 구체적 상황과 이와 관련된 사건 속에서 그에게 내려진 유일신 “알라”의 계시이다. 따라서 코란은 시대와 장소의 제약을 받고 있지만, 이슬람신자들은 코란을 진리로서 따라야 하며 여성문제도 이에 속한다고 믿고 있다.

코란에 나타난 여성에 관한 계시구절들은 코란 계시 당시 아랍여성들이 처하였던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이를 개혁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이다. 이 구절들은 이슬람의 사적 전개를 거치면서 지금의 이슬람 여성의 위상으로 형상화되었지만 근래에 들어서 여성에 관한 코란 구절들을 해석하고 여성에 관한 입장을 적용하는 데 이슬람 전통주의적 입장과 개혁주의자의 입장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결혼과 이혼, 이와 관련된 일부다처제, “베일”로 상징되는 여성격리, 남녀평등 문제가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다. 이슬람 여성상은 종교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이 밀접히 관련되어 독특한 형태로 발전하여 왔다. 이 논문에서는 현대적 의미의 정치 및 시민적 권리와 관계된 여권은 논외로 하고, 코란을 통해 이슬람의 원리적 입장과 비정치적인 면에서의

* 이 글은 교육부의 지역연구 지원사업에 따른 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된 것임.

이슬람여성의 지위를 규명하고자 했다.

Ⅱ장에서는 남성의 우월성만 강조되고 아무런 여성적 권리가 인정되지 못했던 이슬람 이전시대 아랍부족사회에서의 여성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먼저 살폈다. 이같은 여성의 위치가 코란이라는 틀을 통해 여과되고 이슬람이라는 가치체계와 윤리라는 규범에 맞추어져 이슬람 여성의 지위가 정립되고 사적인 전개를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Ⅲ장에서는 결혼과 이혼에 관계된 여성의 지위를 규명했다. 이슬람은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성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녀결합의 다양성인 일부다처제나 이혼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이러한 문제의 제기는 여성의 지위와 관련을 갖는다. 여성이 자기자신의 결혼을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인 여성의 권리이다. 이슬람은 결혼을 계약으로 간주하고 여성자신이 결정하도록 코란을 통해 인정한다. 이슬람 이전시대에 비해 여성의 권리를 강화했다하더라도 여성에게 불리한 점이 아직도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면 많이 남아있다. 특히 이혼문제에서 그렇다. 결혼생활이 지속되지 못할 처지에 이르렀을 때 이슬람은 이혼을 허용한다. 이슬람사회의 질곡중의 하나는 남성의 일방적인 이혼의사로 이혼이 성립되어 여성의 권리가 무시된다는 것이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나 이혼에 관계되는 코란의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코란의 구절들이 이혼문제에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는 여성의 위치와 관련하여 앞으로 이슬람사회에서 두고 두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Ⅳ장에서는 “베일”로 상징되는 사회에서의 여성격리를 코란과 결부시켜 이슬람 여성의 위치를 논하였다.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은 여성의 활동영역은 가정의 테두리에 있어야 하며 남녀구분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내세운다. 이슬람 개혁주의자들은 이슬람 이전시대 가부장적 사회의 여성경시의 풍습흔적과 “베일”의 관습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며 코란의 원리취지는 여성에게도 남성과 같이 사회참여를 허용하는 것이라 말한다.

결론으로는 본논문의 논지를 정리하였고 이슬람여성의 위치가 코란에 비추어 어떤지를 정의하여 보았다.

Ⅱ. “자힐리아”시대의 여성과 이슬람의 개혁

아라비아반도에는 고대에 반도남쪽에 있었던 “시바”의 여왕, 북쪽에 있었던 “팜미라”의 “제노비아” 등 널리 알려진 여성의 존재가 있었다. 7세기초 이슬람 성립전후에도 자유롭게 활동적으로 살았던 여성들이 있었던 기록은 신뢰할 만한 사료에도 있다. 예언자 무함마드의 처음의 아내 “하디자”와 같은 여성 대실업가도 있었고, 여류시인으로서 이름을 날린 여시인 “한사”¹⁾와 같은 여성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이 발생하기 전의 아랍사회(“자힐리아” 시대)²⁾에서 여성은

1 “하디자”(Khadija ?-619) 595년경 무함마드와 결혼. “한사”(Khansa, 575-664).

2 “자힐리아”(jahiliya) 『무지』를 의미하는 아랍어. 이슬람에 대비하여 사용되며 코란이 예언자 무함마

아무런 인간적 권리를 갖지 못한 채 남성의 종속물로서만 취급되었다. 남성의 우월성만 강조되는 부권중심의 부족사회에서 가장인 부친이나 아버지 형제 등 남성만이 절대적인 권리와 이에 수반되는 의무를 갖고 있었다.

여성은 가족의 구성원으로도 간주되지 않았다. 가장인 남성은 집안의 여성을 출가시킬 때 자의로 선택한 상대방 남성으로부터 물질적 대가를 받았다. 매매혼이 일반적이었고 결혼제도는 내연관계를 구별하지 않는 일부다처제였다.

여성에게는 상속권 등 재산권은 일체 인정되지 않았으며 다른 권리도 주어지지 않았다. 남성은 사회 및 가정의 안정에 책임을 졌고 여성은 종속자로 그의 명령에 따를 뿐이었다. 『남성들의 눈에는 여자, 후손, 금과 은, 명마, 가축 그리고 전답 등이 아름답게 보이며 이를 추구한다.』³ 여기에 보이듯 여성은 동산 취급을 당하거나 또는 현세적 욕망의 대상이었다.

여아의 출생을 반기지 않는 “자힐리아”시대의 풍습을 전하는 코란의 여러 구절이 있다. 『딸을 낳았다는 소식을 접하면 화가 나서 얼굴색이 변한다.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한 사람들로 부터 몸을 감추려고 한다. 부끄러움을 참고 살려 두든가 그렇지 않으면 땅속에 파묻어 버리든가⁴ 그들이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⁵

“자힐리아”시대에 여아를 생매장하는 풍습이 있었던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당시 여성인구가 과잉이었고, 부족전쟁으로 인해 남성의 죽음이 많았으며,

둘째, 유목사회는 농경사회와는 달리 항상 인구조절의 필요가 있었고,

세째, 아랍의 전통적 관념의식으로 남자는 목숨을 걸고 여자를 지켜야 할 명예와 의무가 있었으므로 지켜야 할 대상이 너무 많아도 안되었다.

네째, 종교적인 이유였다. 신의 창조물 중 남성은 정결하며 여성은 부정하다고 여겼다.

“자힐리아”시대 부부간의 이혼은 남편의 의지에 따라 제재없이 이루어졌다. 『알라는 남자의 몸에 두개의 심장을 주시지 않았다. “너는 내 어머니의 등과 같다”⁶고 말하고 이혼한 아내들을 알라께서는 너희 어머니로 하시지 않았다.』⁷ 여성의 지위는 낮았고 남성은 무제한수의 여성과 결혼이 허용되고 이혼도 마음대로 하였다.

이슬람도 어느 면에서 “자힐리아”시대의 이같은 여성관을 이어받고 있다. 코란에는 인간은 한방울의 정액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코란 80:18) 정액은 정결하고 여성의 월경은 부정하다 (코란 2:222)라고 씌여 있다. 월경기간 동안 여성은 예배나 제례에 참가

드에게 계시되기 전의 아랍의 상태를 말한다. 역사용어로는 무함마드에 선행하는 150년간.

3 이슬람 이전시대 아랍 부족중에는 여아를 출산하면 산 채로 묻어버리는 생매장 풍습이 있었다.

4 코란 16:57-59

5 Ibid 3:14

6 자힐리아시대의 악습으로 남편은 자기의 이기적 견해로 아내의 권리를 박탈하고 재혼의 자유도 허하지 않고 구속하는 것을 어머니의 등과 같다고 말했다.

7 코란 33:4.

할 수 없고 코란을 만지거나 그 장구를 따로 외우는 것도 금지된다. 이슬람사회의 여성 격리의 근본에는 이같은 “자힐리아”시대부터 계속된 원시감각이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자힐리아”시대에는 여성에게는 재산소유권이 없었다. 상속권도 없고 가정을 관리할 경제권도 없었다. 『부모나 친척이 남긴 유산의 일부는 남자의 몫이며 일부는 여자의 몫이다.』⁸

『알라께서 너희들 누구에게 다른 자보다 많이 베푸셨다고 하여 시기해서는 안된다. 남자는 자기가 벌어들인 몫이 있고 여자는 자기가 벌어들인 몫이 있다.』⁹

이슬람이 여성들에게 재산 소유권을 허용한 것은 이슬람 이전시대의 여성이 지녔던 낮은 위상을 상승시킨 것이다.

코란은 “자힐리아”시대의 모순된 여성관을 혁명적으로 개선했다. 이슬람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인간의 본질적인 면에서 남성과 평등하게 하고 “자힐리아”시대의 남성 일방적인 전통관습을 타파하여 남녀평등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그 분은 한 영혼에서 너희들을 만드시고 동수의 배우자를 만드셨다. 그들 둘한테서 무수한 남자와 여자를 퍼뜨리신 주님을 경외하라.』¹⁰ 남성은 육체적 힘을 믿고 여성이 하는 중요한 역할을 중시하지 않았던 관습을 없애고, 자식을 낳고 기른 여성의 위치를 남성과 평등하게 매긴 것이다. 『주님께서는 답하시대 너희들중 남자이든 여자이든 누구의 일도 헛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들은 서로 같은 위치이다.』¹¹ 남성과 여성의 대등한 지위를 인정한다. 이는 “자힐리아”시대의 부족적 여성관습에서 탈피하여 여성을 본질적으로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 보아 인위적인 구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코란의 여성관 중 주목을 끄는 것은 기독교와는 달리 여성이 남성의 갈빗대에서¹² 만 들어지지 않았으며 인간자신에서 배우자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분이 너희들 자신에서 너희들을 위해 배우자를 만드신 것은 그분의 표적의 하나이다.』¹³ 즉,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입장에서 태어났다는 것이다. 『여성들은 자기들이 한 것 만큼의 권리를 갖는다.』¹⁴ 여성이 생활에 남성과 같이 뛰어 들 수 있다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남성에 대한 여성의 평등을 강조했다.

기독교 성경은 인류 최초의 여성 “이브”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고 아담과 같이 천국에서 쫓겨났다고 설명한다. 코란은 이같은 입장을 취하지 않고 여성을 일방적으로 비난하지 않는다. 천국에서 쫓겨난 것은 여성의 잘못이 아니고 남녀 공동의 잘못이라고 술회했다. 『사탄이 그들 둘을 유혹에 빠지게 하여 그들이 있었던 장소에서 쫓겨나게

8 *Ibid* 5:7.

9 코란 4:32.

10 *Ibid* 4:1.

11 *Ibid* 3:195.

12 성경 창세기 2장 21-23.

13 코란 30:21.

14 *Ibid* 2:228.

했다.』¹⁵

이슬람에서 인간은 신의 의지에 복종하지만 인간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복종한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덕을 가질 수 있으며 선행하면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고 내세운다.

『참으로 알라께 귀의하는 무슬림의 남자들, 무슬림의 여자들, 충성스런 남자와 여자, 인내하는 남자와 여자, 겸허한 남자와 여자, 시주하는 남자와 여자, 재계하는 남자와 여자, 정숙한 남자와 여자, 알라를 창념하는 남자와 여자, 이들을 위해 알라께서는 죄를 사해주시며 커다란 보상을 준비하셨도다.』¹⁶

근원적으로 여성을 무시하는 관습인 갓난 여자아기를 생매장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가난을 두려워하여 너희 자식들을 죽이지말라.』¹⁷ 이것은 여성을 인간취급하지 않는 사회적인 악습을 없애려는 훈고이다. 이슬람 이전시대의 여성학대를 금하는 훈고로, 사회개혁의 첫 발로 내세웠다. 사회개혁을 부활의 날이라는 엄한 제한 속에 수행한다는 것을 내세웠다. 『갓난 여자아기가 산 채로 매장되어 무슨 죄로 살해되었는지 문의될 때 (최후심판의 날)』¹⁸

이슬람이 출현한 후에도 여아출생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남아선호관습이 있지만 어머니로서의 모성은 존경을 받고 딸과 아내로서도 대우받아야 한다고 코란은 설명한다. 『어머니는 임신하여 힘들었고 출산하느라 고생하였다. 임신하여 젖을 땔때까지 30개월이다.』¹⁹

코란의 “메디나” 계시는²⁰ 많은 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제2장 (암소의 장), 제4장 (여성의 장), 제24장 (빛의 장), 제65장 (이혼의 장) 등에 가족관계의 계시가 많다. 여기에 나타난 것을 보면 아직도 남성이 우월한 위치에서 남성이 가족을 대표하고 있지만 “자힐리아”시대에 권리가 없었던 여성이 재산으로나 사회적으로 법적 권리를 갖게 되었다. 상속권도 있고 결혼 후에는 단독으로 재산을 처분할 수도 있게 되었다. 『여자도 양친 및 친척이 남기는 유산의 일부를 얻는다.』²¹ 『너희들 중에서 두명의 증인을 세우라. 두명의 남자가 없을 경우 증인으로 너희들이 인정한 한 명의 남자와 두 명의 여자를 세워라. 만일 여자 하나가 틀렸다 하더라도 다른 여자가 고칠 수 있다.』²²

“자힐리아”시대의 결혼에서 여자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았고 여자를 별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혼이 강구되었다. 무분별하게 남발하였던 남성의 이혼선언을 코란은 제한하였다. 『이혼선언은 두번만 허용된다. 그 후에는 정당한 대우를 하여 동거하든지, 친절히

15 *Ibid* 2:36.

16 코란 33:35.

17 *Ibid* 6:152. 17:31.

18 *Ibid* 81:8-9.

19 *Ibid* 46:15.

20 예언자 무함마드가 “메디나”에 이주한 622-632년간 계시받은 코란장들을 “메디나”계시라 한다.

21 코란 4:7.

22 *Ibid* 2:282.

헤어져라. 너희들은 그녀들에게 주었던 것은 아무 것도 되돌려 받을 수 없다.』²³

코란에 1부4처가 규정된 것은 이슬람 포교전쟁으로 증가된 미망인이나 그 자식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4명의 처에 대해서는 “자힐리아”시대의 제한없었던 다처제를 4명까지 제한하였다는 이슬람 호교론적 학설과 이슬람 성립 당시의 사회경제상황에서 오히려 다처를 권장한 규정이라고 하는 소수학설로 갈라져 있다.

4명의 처에 관한 코란 구절은 다음과 같다.

『너희들이 고아들에게 공정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 너희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둘 또는 셋, 또는 넷의 여자를 취하라. 그러나 공정하게 대우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 한 명과 혼인하라.』²⁴

남성이 4명의 처까지 갖기를 허락한 점이 이슬람이 가장 비난되는 점이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제약이 있다. 남성이 어느 처와도 같은 계약을 맺고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것이 조건이다. 그리고 한꺼번에 4명까지의 처를 남자가 가질 수 있다는 코란의 허용은 고아에 관한 주제와 관련되었으므로 코란 계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살펴야 한다. 이슬람 포교 당시 이슬람 남자신도들 중 많은 사람이 전사하여 과부와 고아들이 남게 되었다. 전쟁으로 인하여 남자보다 여자가 많이 남게되었고, 고아들의 보호라는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었다.²⁵

4명의 처를 얻을 수 있다는 코란 제4장 2-3절은 같은 장의 127-129절에 의해 제한된다. 『너희들이 아무리 원하여도 너희 처들 사이를 공정하게 할 수 없다. 한 여자를 편애하여 다른 여자들을 매달린 여자처럼 방치하지말라. ...』²⁶

아내들을 한 남자가 평등하게 부양하고 부부관계를 갖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실질적으로 “자힐리아”시대의 다처제를 제한하였으며 1부1처제를 권장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힐리아”시대에 인간적 대우를 받지 못하고 법적 권리를 갖지 못했던 여성은 이슬람의 출현으로 이슬람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남성의 동반자로 여겨졌다. 이슬람사회의 새로운 여성관은 사회질서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이슬람은 부부 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부부의 재산은 결혼으로 인해 공동 소유로 되지 않는다. 결혼생활중 노동이나 상속으로 얻은 재산은 각자에 속한다.

이슬람 이전의 아랍사회에서는 남자가 『혼인 계약금』(Mahr-마흐르)을 여자측의 부친이나 후견인에게 지불해야 결혼할 수 있었다. 결혼은 신랑과 신부 후견인의 매매관계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마흐르”는 신부의 소유가 되지 않고 신부 후견인의 소유가 되었다. 그러나 이슬람은 “마흐르”를 전적으로 신부가 가져야 한다고 정하였다.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 아무 것도 소유할 수 없었으나 결혼 후에는 자산을 소유하게

23 코란 2:229.

24 Ibid 4:3.

25 코란의 4명의 처에 대한 계시는 625년 “우후드”전투 이후의 일이다. 다처제가 이미 당시의 관습이었다고하면 과부와 고아구제책이 급한 과제였다.

26 코란 4:129.

되었다. 『그대들의 재산을 갖고 체면을 잃지 않고 간통함이 없이 좋은 연을 찾아 여자를 구하라. 그래서 그녀들을 만족히 여긴다면 혼인계약금을 주어라.』²⁷ 결혼식의 혼인계약금도 남자가 여자에게 지불하고 여자가 그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은 이슬람 이전시대의 매매혼의 흔적이 엿보이지만 여자의 별개 재산 소유라는 면에서 이슬람 전에 비하면 경제적 측면에서 획기적인 일이다.

“마흐르”의 일정한 액수는 정해 있지않다. 『부유한 자는 그 분수에 따라서 가난한 자는 그 분수에 따라 혼인계약금을 주어라.』²⁸

“마흐르”는 결혼계약금을 전액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를 혼인 전에 지불하고 나머지 잔액은 혼인 후 몇년간에 지불하는 기간이 정해져 지불된다. “마흐르”는 아내의 재산으로 간주되고, 아직 지불되지 않은 “마흐르”는 아내에게 갚아야 할 남편 부채로 남아 있다. 남편의 사후의 재산처분에서도 “마흐르”는 제일순위로 청구권이 확보된다. 『여자에게 혼인계약금을 주어라. 그러나 그녀가 스스로 그 일부를 되돌려주기를 바라면 기꺼히 받아라.』²⁹ 아내에게 혼인계약금을 이의없이 주고 아내도 남편이 돈이 필요할 때 남편에게 돌려준다함은 여성이 재산을 독자적으로 소유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아내가 재산을 가졌다 할지라도 남편은 아내를 대우하고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다. 남편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에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남편이 무슨 사유에서든 곤궁에 처해 있을 때 아내의 친정에서 딸의 생계를 도울 수 있다. 그리고 남편의 경제상태가 회복되면 친정에서는 도운 것만큼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가정생활에서 남편이 자기의 의무를 다한다면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아내가 복종하지 않을 때 아내를 징계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아내가 “마흐르”전액을 수령하지 않았으면 아내 친정쪽은 남편의 혼인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마흐르”는 딸의 결혼생활을 둘러싸고 남편과 아내의 친정 부권 사이에 있는 힘의 척도란 측면도 있다. “마흐르”전액을 일시불로 지불하지 않는 관습은 아내의 친정이 딸을 돌려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³⁰

“마흐르”는 “자힐리아”시대에는 없었던 여성의 재산권을 가지게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자힐리아”시대의 아랍부족사회에서는 여성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은 부계남성친족(‘asaba-아사바)만으로 한정되었다. 이슬람은 부족사회에 뿌리박힌 여러 상속 문제를 개혁했다. 그 두드러진 점은 여자고아와 과부에게 재산권을 인정하고 여성에게 상속권을 부여한 것이다. 『남자는 양친 및 가까운 친척의 유산 일부를 얻는다. 여자도 양친 및 가까운 친척의 유산 일부를 얻고 유산의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이 정하여진 몫으로 분배한다.』³¹ 이 구절은 남녀의 사회적 동등성이라는

27 코란 4:24.

28 Ibid 2:236.

29 Ibid 4:4.

30 Reuben Leby, *The Social Structure of Islam*. London: Cambridge Univ. Press, 1969, p.113.

31 코란 4:7.

이슬람법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여성의 상속권은 남성과 동등하지 않으며 남성의 1/2로 되어 불리한 입장이다.

『남자는 여자의 두배의 몫을 분배받는다. 만약 상속자가 여자뿐이며 2명 이상일 때에는 사망한 자가 남긴 유산의 2/3를 받는다. 만일 여자가 혼자라면 그 1/2을 받는다.』³²

코란에 의하면 여자상속인은 죽은자의 딸, 아들의 딸, 어머니, 할머니, 자매등이며 코란 4:11-12, 176절에 명기되었는데 그 할당은 유산의 1/2, 1/4, 1/6, 1/8 등으로 되어있다. 실질적으로 그들은 남성에 비해 2차적 상속인의 취급을 받고 있다. 남편은 죽은 처의 재산 1/2을 받으나 아내는 남편의 재산 1/4을 상속받는다.

이슬람 이전시대에는 죽은 자의 남성친족만이 유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었다. 이슬람 초기 여러 전투에서 다수의 이슬람 남자교도들이 전사하여 그들의 유산을 둘러싸고 유족 간에 다툼이 일어났다. 이때 과부들은 죽은 남편의 남계친족만이 상속권이 있고 자기나 애들한테 이것이 없다는 불만을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호소했다. 그 결과 아내 및 가장 가까운 여자친족들에게도 유산의 일부를 상속시키게 되었다. 코란 제4장 7,11,12,13,14 및 176절에는 그러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슬람 이전시대의 남성우위의 권리를 보이고 있다.

법적으로 상속분을 받을 수 있는 여성은 딸, 어머니, 아내, 자매 등이다. 그러나 이슬람 법학자들은 너무 세분하여 융통성 없는 상속제도를 규정하여 불편한 일이 일어났다. 또 이슬람사회의 도시화가 진행되어 단일 가족이 많아짐에 따라 단일 가족을 보호하는 경향이 있다.

Ⅲ. 결혼과 이혼

1. 결혼

이슬람은 남녀의 혼인을 신이 정한 규범으로 여기고 직령기에 달한 남녀는 결혼하도록 장려한다. 혼인을 당사자 상호간의 계약으로 본다. 『너희들은 어찌 되돌릴 수 있을까? 이미 서로 연관되었고 그 여인들은 너희들로부터 굳은 서약을 받고 있다.』³³

이슬람사회에서 결혼은 본질적으로 계약이다. 쌍방의 합의야말로 유효한 결혼의 조건이다. 사회계약이기때문에 쌍방에게 권리와 의무가 수반된다. 『그녀들은 그대들의 의사이며 그대들은 그녀들의 의상이다.』³⁴

이 구절은 여성의 권리와 지위 및 부부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의복은 몸을 감싸고 보호하는 구실을 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서로의 보호와 관리를 한다는 것을 뜻하

³² Ibid 4:11-12.

³³ 코란 4장 21절.

³⁴ Ibid 2:187.

며 부부사이의 원칙적으로 평등하다.³⁵

『또 그분이 너희들 자신으로부터, 너희들에 의해 배우자를 만드신 것은 그분의 표적 중의 하나이다. 너희들은 그녀들로부터 위안을 얻고 너희들 사이에서 사랑과 정의 마음을 심어놓으셨다.』³⁶ 여성에 대한 남성의 사랑, 남성에 대한 여성의 사랑은 자연적인 이끌림으로 결혼을 통하여 남녀간에 맺어지고, 가정을 이루고, 인류의 존속으로 이어진다. 이성간의 결합은 결혼에 따른 책임수행으로 사회적으로 정당화된다. 책임이 수반되는 이성간의 결합을 “이흐산”(ihsan, 선량한) 결혼이라 하며 이와 반대되는 결합을 “사피야”(Safah, 간음)라 한다.³⁷

아랍어로 결혼을 뜻하는 “니카”(Nikah)는 원래 계약이나 결합을 의미한다. 인간생활의 정상적인 길을 걷기 위한 사회적 계약의 의미를 내포한다. 『그대들 중 혼자된 자, 남자종과 여자종 중 혼령기가 되면 결혼시켜라.』³⁸

『그분이야말로 혈통으로 친적과 혼인관계를 정하신 분이시다.』³⁹ 청혼하는 남성은 여성이나 여성의 보호자에게 청혼할 수 있고, 여성도 자기후견인을 통하여 남자에게 청혼할 수 있다.⁴⁰ 청혼이 수락되면 결혼계약이 체결되고 얼마동안의 기간이 지난 후 혼인이 성립된다. 『서로 관련된 굳은계약(mithagan ghalizan)』⁴¹ 이 결혼계약의 요지이다. 혼인계약은 신랑측인 남자가 신부측의 여자에게 혼인계약금(“마하르”, mahr)을 지불하면서 체결된다. 『여인들에게 결혼계약금을 기꺼이 주어라.』⁴² 돈의 지불인 결혼계약금은 아내의 독립적 위치를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혼의 조건은 남자가 여자에게 “마하르”를 지불할 수 있고 의식주를 마련할 능력이 있을 때에 이루어진다. 역으로 여성은 결혼에 허용된 법적 사회적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슬람은 결혼을 하는데 여자의 의사를 절대적으로 존중한다. 『너희들 믿는 자들이여,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자를 상속하는 것은 합법이 아니다.』⁴³ 신랑과 신부 당사자와 신부의 부친 또는 후견인을 내세워 결혼계약을 한다. 결혼당사자는 누구라도 대리인을 세우는 것이 허용된다. 신부 자신이 결혼계약을 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후견인(“왈리”, Wali)은 반드시 뒤를 돌보고 있는 결혼당사자인 여성의 승락을 얻어야 결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결혼은 순전히 민사혼인이므로 종교적 의식이 수반되지 않는다. 서로의 집안, 신분, 직업등의 균형(“카파” Kafa)이 고려된다. 남성이 자기보다 높은 신분의 여성과 결혼하

35 Abdullah Yusuf Ali, *The Holy Quran*, Beirut: Dar Al Arabia, Beirut, 1968. p.74.

36 코란 30:21.

37 Maulana Muhammad Ali, *The religion of Islam*, U.A.R. National Publication, p. 647.

38 코란 24:31.

39 *Ibid* 25:54.

40 ibn Ismail al-Bukhari, *al-Sahih al-Bukhari* 67:34.

41 코란 4:21.

42 *Ibid* 4:4.

43 *Ibid* 4:19.

는 예는 드물다. 한편 이는 신부를 보호하는 요소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자유를 속박하는 위협성도 있다. 혼인계약은 신칭(“이자브”, ijab)과 이에 응하는 승락(“까불”, qabul)으로 맺어진다. 두명의 증인, 후견인 입회 아래 신부측 후견인은 신부가 신랑에게 출가했다고 선언하고 신랑은 여자를 맞이한다고 선언하면 혼인이 성립된다.

성인에 달한 여성은 성인인 무슬림 남성과 결혼할 수 있다. 결혼할 수 있는 여성의 연령에 관해서는 시대, 지역적인 차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피이”⁴⁴ 법학파는 만15세, “하나피”⁴⁵파는 만 14세로 하고 있다. 『결혼연령에 달했을 때는 고아를 시험해봐라.』⁴⁶ 이슬람이전의 아랍사회에서는 실로 여러가지 결혼형태가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아내가 될 여성의 의사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⁴⁷

이슬람은 결혼의 본질을 결혼하는 두 당사자가 함께 살기로 계약하고 공동생활에서 야기되는 책임과 의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본다. 때문에 결혼계약이 당사자들의 신체적인 성숙과 함께 사리분별할 수 있는 연령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은 자연스럽다. 여성의 경우 자기를 돌보는 아버지나 또는 후견인의 승락 없이 자기의 결혼에 동의할 수 있느냐는 연령에 관계가 되지만 이슬람의 각 법학파들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이혼녀의 경우 『그녀가 좋아하는 남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전 남편은 방해해서는 않된다.』⁴⁸

과부의 경우는 『그녀들이 나가서 합법적으로 행동하였다면 너희들에게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⁴⁹

과부와 이혼녀는 남편을 선택하는 데 전적인 자유가 부여되고 있다. 여자가 성년이 되면 후견인에게 문의하지 않고 그녀의 재산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남편선택의 결정권도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나이 어린 여성들은 세상살이의 경험이 없는 상태이므로 잘못되지않게끔 아버지나 후견인의 충고에 따라야 한다. 그렇다하더라도 결혼계약은 그녀의 동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후견인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존재이고 상담하는 데 필요할 뿐, 결혼은 궁극적으로 여자당사자의 의지에 좌우된다. 후견인의 역할이란 결혼하려는 나이 어린 여성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결혼의 장애가 되는 조건은 여러가지가 있다.

첫째로, 여성은 한사람의 남편을 가질 수 있지만 남성은 주위 상황에 따라서 네명의 아내를 얻을 수 있다. 일부다처제와 관련해서 이슬람 원래의 정신과 실제 관행의 사회에는 격차가 있으며 문제점이 많다. 그러나 분명히 밝혀 둘 것은 남성은 4명까지의 아내를 가질 수 있으나 복수의 처를 가져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4명의 아

44 Shafi. “순니”파 이슬람 법학파. 법원에대한 엄격한 방법론 확립.

45 Hanafi. “순니”파 이슬람 법학파. “순니”파의 다른 세계의 법학파에 비해 지역적 관행이나 학자의 개인적 견해에 관대.

46 코란 4:6.

47 Beck Keddie, *Women in the Muslim World*, Chicago: Chicago Univ. Press, 1979. p.4.

48 코란 2:232.

49 *Ibid* 2:240.

내를 취하여도 괜찮다는 부분만이 일부층에서 강조되어 이 제도가 타락했다.

『너희들이 만일 고아들을 공정하게 대하지 못한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너희들이 좋고 생각하는 하나, 둘, 셋 또는 네명의 여자를 취하라. 그러나 그 여자들을 공평하게 대우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 단지 한 사람을 취하든지, 또는 너희들의 바른손을 취하라.』⁵⁰ 단, 바른손의 여자(노예녀)가 존재하지 않는 현대에서 모든 성관계는 결혼을 전제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 동시에 복수의 처에 대해서는 이를 완전히 대등하게 취급하라는 코란구절의 지시도 있어 현대에서는 일부일처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둘째로, 무슬림 여성은 같은 종교를 믿는 남성과 결혼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으나 남성의 경우에는 성서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유태교도, 기독교도 등과의 결혼이 허용되고 있다.

세째로, 근친자 간의 결혼은 금지되고 있다. 즉, 직계의 여자친족은 존족, 비족을 불문하고 결혼대상으로부터 제외된다. 자매, 자매의 여자비족, 아버지측, 어머니측을 불문하고 고모나 이모들은 제외된다. 인척관계도 혼인의 장애가 된다. 특이한 것은 한 여자에게 젖을 같이 먹고 자란 남녀간의 혼인도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네째로, 여성은 앞서 행하였던 결혼이 해소된 후 일정기간 내에 재혼을 위한 새로운 혼인계약을 할 수 없다. 이 기간을 “잇다”(iddah, 재혼금지기간)라고 부른다.⁵¹ 남편이 사망하였다면, 코란 제2장 234절에 의하면 그의 아내의 “잇다”기간은 4개월 10일이다. 혼인해소가 남편사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혼에 의한 것이라면 아내는 세번의 월경을 경과한 후에 재혼이 허락된다.

혼인은 계약이므로 계약자의 한편이 없어진다면 그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소된다. 남편이 사망한 여성은 결혼계약에서 해방된다. 따라서 과부가 될 경우 시기에 머물 수 없으며 시가로부터의 돌봄도 없다.

유럽의 관행과는 달리 결혼 중에도 결혼 전에 가졌던 성을 갖고 친정으로부터도 물질적으로 원조를 받는 것이 보통이다.

혼인관계는 원칙적인 것, 비합법적인 것, 변칙적인 것의 세개로 나누어 질 수 있다. 합법적인 것은 그 결과로 생기는 애들에 관해서도 정당한 사회적 권리가 주어져 있다. 비합법적인 결혼일 경우 상대방이 사망할 시 사망으로 생기는 상속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변칙적인 결혼이란 증인 없는 결혼, “잇다”기간 중의 결혼, 이교도와의 결혼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변칙적인 결혼을 한 자들은 새로운 증인을 구하고 결혼하거나, “잇다”를 지키거나, 상대가 개종하여 결혼할 가능성도 있다. 어떤 법학파에 따라서는 변칙적인 결혼은 비합법의 범주에 놓기도 한다.

혼인을 중심으로하는 가족법은 이슬람법의 중핵을 이루고 이슬람사회 깊히 침투해 있다. 이슬람을 호교하는 법학자들은 “자할리아”시대의 여성의 지위가 극히 낮아 남성은

50 Ibid 4:3.

51 세번의 월경을 보는 기간으로 치는 이 기간에 다시 결혼할 수 없다. 코란 65:1 참조. 사별의 경우 4개월 10일.

무제한수의 여성과 결혼이 허용되었는데, 이것을 『4명의 처』로 이슬람은 제한을 가하거나 금지시킨 것이라고 논한다.

그러나 남성의 중혼을 허용한 일은 여성을 경시하는 행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20세기초의 이집트출신 여성운동가 “까심 아민”은⁵² 이슬람법에 비추어 이슬람의 윤리면에서 남성의 중혼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그의 주장은 이슬람세계에서 커다란 반응을 일으켰다.

여성은 남편을 다른 여성과 공유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남성이 결혼 후 다른 아내를 갖는다면 최초의 아내는 감정이 상하고 희망이 없어진다. 이슬람법으로는 여성이 발광하거나 애를 낳지 못할 경우 남성의 중혼이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남성은 아내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고 현실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이슬람사회에서도 보고 있다.

이슬람 사회의 여성문제로 4명의 아내가 허용되는 것이 음란과 난교라는 이미지로 잘못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슬람사회에서 성에 대한 억제는 대단히 강하다. 성에 대한 억제는 성을 죄악시했거나 부자연스러운 것, 불건강한것으로 여겨서가 아니다. 오히려 성은 인간 본래의 자연적인 것으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성을 신성한 것,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보통 성행위가 행하여지는 여성의 방을 “하렘”으로 불리는 데에 나타난다. “하렘”은 “하람”(haram, 신성하여 범하지 못하는)에서 유래하였고 결혼한 여성은 “호르마”(hurma)라는 존칭으로도 쓰인다.

인간은 유혹에 약한 존재라는 인식이 근저에 있고 자칫하면 성적 혼란에 빠질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남성의 중혼이 성립될 수 있다고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은 말한다. 그러나 이슬람사회의 여성의 위치는 중혼이 허용됨으로써 남성에 종속되었다는 것이 그 사회의 중론이다.

2. 이 혼

고대 아랍사회에서 이혼은 극히 간단하였다.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너는 내 어머니의 등과 같다.』⁵³ 즉, 다쳐서는 안되는 존재라고 말하면 이혼이 성립되었다. 이런 남성의 이혼선언은 이슬람법 전문용어로 “지하르”(Zihar)라고 한다. 또, 남편이 아내에 대해 금욕의 맹세를 하고 사실상 이혼과 같은 입장에 처하게 하면서 아내측에 새로운 혼인의 가능성을 폐쇄하는 “일라”(Ila)⁵⁴와 같은 관습도 있었다. “일라”는 아랍어로 맹세라는 뜻이지만 전문용어로는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 가지 않겠다는 이혼의 전제를 의미한다.

이슬람이 생겨난 후 “자할리아”시대의 남편이 갖고 있었던 이혼권을 제한하고 정당

52 까심 아민(Qasim Amin, 1865-1908). 이집트의 사상가이며 여성운동가. 이슬람 윤리와 서구자유주의 사상을 결합한 여성관을 내세웠다.

53 Maulana Muhammad 'Ali, *The Religion of Islam*, Cairo: National Publication house 1965, p.686.

54 *Ibid* p.686.

한 이유가 있는 경우 아내에게도 이혼하는 권리를 주고 있다.

『아내를 네 곁에 머물게 하여라. 필요한 이혼수속이 완료될 때까지』⁵⁵

이슬람은 이혼을 용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애정이 없는 부부생활에서 이혼을 부인하는 것이 보다 비인간적이라는 입장을 나타낸다. 그런데도 될 수 있는 한 이혼을 삼가하도록 신자들에게 타이르는 구절이 많다.

『만일 너희가 그들을 (즉, 너희 아내들을) 싫어한다면, 그를 통해 네게 온 많은 좋은 것들을 싫어함이라. 가능한 한 이혼을 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일 둘 사이에 (남편과 아내) 헤어질 우려가 있다면 남자측에서 중재자 한사람 그리고 여자측에서 중재자 한사람을 내세워라. 만일 그들 둘 다 화해를 원한다면 알라는 그들 사이를 화합하게 하나니.』⁵⁶ 예언자 무함마드도 『알라에 걸고 말하나니 이 세상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것은 이혼이다.』라고 말했다고 “하디스”는⁵⁷ 전하고 있다.

이혼은 남편과 아내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때 이루어진다는 원칙이 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 성격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 해서 곧 이혼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이슬람은 남편의 일방적인 이혼선언으로 이혼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코란은 남편의 이혼 의도를 견제하고 아내를 감싼다.

『만일에 그들이 서로 헤어진다고 하더라도 알라는 그 풍요로움으로 그들 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나니.』⁵⁸ 이슬람은 이혼을 좋다고 여기지 않지만 죄로는 생각지 않는다. 쌍방이 결혼계약에 기술된 조건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남편과 아내 둘 다 동등한 지위에서 이혼문제를 처리하는 데 자기를 대신할 수 있는 대리자를 내세운다.

이혼의 형태는 대별하여 세개로 나눈다.

첫째는 남편의 사망이다. 남편과 사별한 여인은 “4개월 10일”의 “잇다”(‘iddah, 재혼 금지기간)를⁵⁹ 경과한 후에 재혼이 가능하다. 『너희들이 아내와 이혼하고 정하여진 기간이 만료되면 정당한 대우로 동거하든지, 또는 친절하게 헤어져라.』⁶⁰

두번째 형태는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지, 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이것은 일반적 이혼이다. 이는 남편측의 의사에 의한 것과, 아내측 의사에 의한 것, 양자합의에 근거한 것으로도 나눌 수 있다.

남편측의 선언에 의한 이혼을 “탈라끄”(talaq)라고 부른다. “탈라끄”란 남자측의 일방적인 선언에 의한 이혼인데, 원래의 아랍어 뜻은 “매듭풀기”, 또는 “매듭을 맺지 않는다”이다. 동물을 굴레에서 풀어준다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아내를 결혼의 유대에서

55 코란 33장 37절.

56 *Ibid* 4장 35절.

57 “하디스”(hadith). 광의로는 전승을 의미하며 협의로는 무함마드의 언행록 전승.

58 코란 4장 130절.

59 *Ibid* 2장 234절 참조.

여성은 혼인해소 후 대혼기간(잇다)을 경과하지 않으면 재혼할 수 없다.

60 *Ibid* 2장 231절.

풀어준다는 뜻의 이혼이란 어휘로 변하게 되었다. “잇다”(재혼금지기간)라고 칭하는 “4개월10일”의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아내의 새로운 혼인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기간 중 처의 임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이혼한 아내가 애를 낳으면 전 남편은 애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물론 남편은 “잇다”(재혼금지기간)중에 아내와 화해하고 남편이 “딸라끄”를 취소할 권리를 갖고 있다.

“하디스”(이슬람전승)에 의하면 “딸라끄”의 취소건은 이슬람 초기에 남용된 것 같다. 남편이 일시적인 감정으로 “딸라끄”를 선언하는 일이 빈번한 데다 “잇다”가 종료되기 전에 “딸라끄”를 취소하는 일이 있었다. 이때문에 아내들은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불만을 토로하였다. 여기서 이런 관행이 금지되었다.⁶¹ 또한 “딸라끄”의 취소건도 제한을 가하였다. 즉, 코란에 의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두번의 “딸라끄”를 선언하는 것만이 허용된다. 『이혼선언은 두번만 허용된다. 그 후는 정당한 대우로 동거하든지, 또는 친절하게 헤어져라.』⁶²

아내와 헤어지기를 원하는 남편은 세번에 걸쳐 이혼선언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아내와 침상을 같이 해서는 안된다. 매번의 “딸라끄” 선언 후에 “잇다”기간이 시작되고 “잇다”중에는 아내는 다른 남자와 혼인할 수 없다. “잇다”중에는 혼인관계는 해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세번째의 “딸라끄”가 선언되면 혼인은 즉시 해소된다. “잇다”는 세번째의 “딸라끄” 선언 후 계속하여 행해지며 그동안 아내는 재혼할 수 없으나 남편은 더 이상 “딸라끄”를 선언할 권리가 없다. 더욱 이같은 세번째의 이혼선언 후 부부이던 두사람은 다시 합친다는 새로운 혼인계약이 허용되지 않는 원칙이 세워졌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세번째의 “딸라끄”를 당한 아내가 일단 다른 남자와 혼인을 하고 이 남자와 이혼한 후라면 남편과 혼인하는 것이 허용된다.

여성도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남편과 아내가 비무슬림이었다가 아내가 이슬람에 개종하고 남편이 개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 남편이 종신형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일 경우, 남편이 행방불명되어 오랫동안 소식이 없는 경우, 남편이 생계를 지탱할 능력이 없는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잔인하게 대했을 경우에는 아내는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전문용어로 “홀”(Khul)이라고 한다. “홀”이란 문자의 뜻은 『벗는다』이다. 의복의 일부를 벗어던진다는 뜻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말이 사용되었다고 해석된다. “홀”은 왕왕 남자가 여자를 경시하거나 싫게 대우해줌으로써 일어난다. 코란은 남편이 혼인계약금을 되찾는 것을 금지하였다(코란 4장 24-25절). “홀”이 인정되었다는 것은 남편을 싫어하고 남편으로부터 떨어지겠다는 여자의 요구를 이슬람이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코란 2장 229절 참고).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어질거나 어리석거나, 모질거나 착하거나 신체적 조건이나 성격의 결함 등을 막론하고 남편을 섬기며 순종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물론 정절이 강조되지만 여성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

61 코란 2장 231절 참조.

62 Ibid 2:292.

양자합의에 따라 이혼하는 것으로 “홀”과 “무바라”(Mubara)를 들 수 있다. 학자에 따라서는 “무바라”를 “홀”의 단순한 변형이라고 강조하는 자도 있고 “홀”과 다른 형식의 혼인해소라고 보는 자도 있다. 예를 들어, “무바라”는 부부가 서로 헤어져 의무에서 해방되어 혼인으로 생기는 모든 경제적 고통을 면제받는 것이다.

남편측이 아내의 이혼의사에 동의하는 경우가 “홀”이며 양자가 함께 이혼의사를 가진 것이 “무바라”이다. 남편측이 일방적으로 이혼의 의사를 표명하는 “딸라끄”의 경우 남편은 아내에게 “마흐르”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홀”의 경우에는 아내는 “마흐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었지만 아내는 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아도 좋다.

재판관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이혼이 있다. 남편의 질병, 또는 신체가 허약하여 혼인 생활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나 남편이 법으로 정하는 부양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아내는 재판관의 개입으로 “파스흐”(Faskh)를 통하여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혼인 후 혼인계약시 맺었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 밝혀진다면 “파스흐”에 의한 이혼이 가능하게 된다. 물론 재판관은 고소에 따라 엄밀히 사실을 확인하고, 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 “파스흐”에 의한 판결을 내리고 혼인이 해소된다.

재판관의 개입이 필요한 또 다른 경우에 “리안”(Li'an)이라는 이혼이 있다. “리안”이란 저주를 뜻한다. 『자기의 아내를(간통, 의심으로) 고소하고』 자기자신 이외의 증인이 없는 경우 알라에 맹세하고 자기가 말한 것이 거짓이 아니라고 네번 되풀이한 다음, 다섯 번째로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면 알라의 저주가 걸리도록 맹세하는 것이다. 여자편에서 남편의 말이 허위라는 것을 네번 맹세하고 다섯번째로 그의 말이 진실이라면 알라의 노여움이 자기에게 내려지도록 맹세한다면 징벌은 면한다.⁶³

이 경우 재판관은 쌍방에게 맹세하게 하고 이혼시킬 수 있다. 아내의 부정을 고소하는 남편은 증인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할 때는 처를 비방하였다는 형벌을 받게 된다. 아내의 부정이 밝혀진다면 아내에게 이혼권이 없으며,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내에게 이혼청구권이 있다.

근대의 이슬람 개혁주의자로 여성해방을 주장한 “카심 아민”(Qasim Amin)은 그의 저서 <여성해방론>(1899)과 <신여성론>(1901)에서 상기와 같은 이슬람법의 이혼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남성에 의한 일방적인 “딸라끄”를 공격하였다. 그는 남성이 여성 위에 서고 결혼의 주도권을 가지며 이혼의 일방적 권리를 갖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같은 관행은 이슬람사회의 질곡으로 되었고, 여성은 이혼을 요구하는 힘이 없는 남녀 불평등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과 같은 현대적 해석도 있지만, 코란은 이혼의 불가피성과 여성에 대해 관대함을 갖고 대하도록 권한다. 『이혼은 두번 선언된다. 그리고나서 그들이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상호간에 친절히 지내도록 내버려 두어라.』⁶⁴

63 코란 4:6-9.

64 코란 2:229.

『그리고 너희가 여인과 이혼하여 규정된 기간에 이르면 정당한 대우로 동거하든지, 또는 친절하게 헤어져라.』⁶⁵

이슬람 사회에서 이혼은 남성의 일방적인 의지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남성측에 부과되는 책임과 경제적 부담은 보통 생각되는 정도로 간단한 것은 아니다. 또 상호간의 공동이익이나 호혜관계나 애정이 없어졌을 때에도 이혼할 수 없는 엄격주의는 아니다. 혼인과 다른 점은 일방의 혼인해소의사로 이혼이 성립된다는 점이다.

남성측은 이혼함에 따라 부담을 져야한다. 즉 “마흐르” 미지불분의 청산, “잇다”기간 중의 처의 생활비, 아이들의 장래를 포함한 양육비 등이다. 이혼이유도 여러가지 이지만 남성측에서는 처의 불임이나, 남자를 낳지못하는 경우, 여성측에서는 남편의 부양의 무의 불이행이나 이유없는 실종 등이 주로 이혼사유가 된다.

IV. “베일”과 여성격리

여성이기때문에 특정한 것을 해서는 안된다고 코란이 금하는 지시는 없으며 집에 갇혀 있어야만 한다는 규율도 없다. 그런데도 이슬람세계에서 여성격리가 “베일”과 관계되어 문제가 제기된다.

『남자신자들에게 말하라. 그들의 시선을 낮추고 가릴 곳을 가려라. 이렇게 함도 그들을 위해 더욱 정결한 것이다. ... 여자신도들에게 말하라. 그녀들의 시선을 낮추고 가릴 곳을 가려라. 밖으로 나갈 때 외에는 그녀들의 아름다움이나 장식이 눈에 띄게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베일”을 가슴위에 내리게하라. 자기의 남편 또는 아버지 외에 누구에게도 그녀의 아름다움이나 장식을 보여서는 안된다.』⁶⁶

중동이나 북부아프리카에 가면 얼굴을 “베일”로 가린 여성을 만날 수 있다. 현대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얼굴을 내놓고 다니는 여성은 많지 않다. 여성의 “베일”이 사회의 후진성, 봉건적인 남성우월의 상징처럼 말해지는데, 그렇게 단순한 것도 아니다.

여성의 얼굴을 가리는 “베일”은 아랍어로 “히자부”(hijab)라고 한다. 이 단어는 “베일” 그 자체를 지칭하는 동시에 격리를 의미하는 말로도 사용된다. “히자부”라는 말은 코란에 세번 나오는데 어느 경우에도 얼굴의 표면에 가리개를 씌우고 얼굴을 가리는 “베일”이라는 것 보다도 여성이 사람을 만날 때 칸막이나 방에 내려진 커튼이나 장막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하는 것을 뜻한다.

『또 너희들이 그녀들에게 무엇인가를 달라고 요구할 때에는 반드시 장막(히자부)의 뒤에서 물어보아라. 그것은 너희들의 마음 또는 그녀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것이다.』⁶⁷

예언자 무함마드의 아내를 커튼을 쳐, 타인과 격리하는 것이 “우마르”(2대 칼리프)⁶⁸

65 *Ibid* 2:231.

66 *Ibid* 24:30-31

67 코란 33:53

의 진언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한다. 아마 예언자의 아내의 권위를 지키고 여성적인 조심스러움을 강조하고 무용한 스캔들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작용하였을 것이다.⁶⁸

또 다른 절에서 예언자의 딸이나 아내에 대해 충고하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예언자여 그대의 아내, 딸들 또 일반 신도들의 여자들에게도 길다란 옷을 걸치도록 말하라. 이렇게 되면 누구라고 알려지지 않게되어 해가 되지 않는다.』⁷⁰

여기 인용한 두개의 구절을 보면 “메디나”기의 어느 때에 예언자의 아내들을 타인의 눈에 띄지않게 격리시킨 것 같다. 그리고 일반신도 여성들에게는 머리로부터 걸쳐입는 길다란 옷이 장려되었다. 이전에는 무슬림 여성들은 긴 옷을 입는 습관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코란 자체는 얼굴을 가리는 “베일”을 입을 것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후세에 얼굴을 가리는 습관으로 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예언자의 아내가 집 안에서 타인과 만났을 때는 반드시 커튼을 내리고 직접 얼굴을 대면하지 않았던 것은 될 수 있는 한 남녀의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도록 하는 취지였다.

이슬람 초기에는 여성이 “베일”로 얼굴을 가리는 습관은 일반화되지 않았다. 농민이나 유목민 사이에서 이슬람적 관습인 “베일”의 착용은 오랜 세월이 지날 때까지 별로 정착되지 않았다.⁷²

여성인 “베일”로 얼굴을 가리는 습관이 정착될 때까지 꽤 시간이 걸렸다. 이슬람 법학의 완성자라고 불리는 “샤피이”(Shafi'i)⁷³는 얼굴이나 팔도 여성은 노출시키지 말고 가려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샤피이”보다 약 1세기 후의 코란 해석자이며 사학자인 “따바리”(Tabari)는⁷⁴ 얼굴, 팔의 중간부터 손등 부위, 즉 눈화장, 팔찌, 반지 등은 보여도 좋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샤피이”에 비하면 아주 자유로운 해석이다.⁷⁵ 보다 엄한 복장규정이 이미 당시에 정착하였다면 전통적인 이슬람학자인 “따바리”가 감히 그 전통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슬람학자들(법학자)은 이런 “따바리”의 견해와는 달리 여성에 대한 엄격한 방향을 견지하는 시각을 가진다. 13세기의 유명한 코란해석학자 “바이다위”(Baydawi)는⁷⁶ 예배 때 여성이 얼굴을 밖에 드러내어도 좋으나 여타의 경우에는 가려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68 제 2대 정통 칼리프로 634-644 재위

69 al-Sahih al - Bukhari 4:13; 67:116

70 코란 24:59

71 이슬람의 성지, 예언자 무함마드가 622년 이주하여 활동한시기.

72 Syed Amir Ali, *A Short History of the Saracens*, London: Macmillan, 1927. p. 455.

73 “샤피이”(al-Shafi'i) 767-820. 이슬람법학자. “순니”와 “법학파”의 하나인 “샤피이”파의 시조. 저서로는 “기원의 서”(Kitab, al-umm)등.

74 “따바리”(al-Tabari). 839-928. 사학자이며 코란학자. 저서로는 “예언자들과 왕들의 역사”(Ta'rikh al-rusul wa al-muluk)

75 Al-Albani, *Hijab al-Mar'ah al-Muslimah fil-kitab Wal-Sunnah*, Beirut: Al-mak tab al-Islam, 1965.

76 “바이다위”(Al-Baydawi). 이란의 “시리즈”에서 재판관으로 근무

이들 이슬람 법학자들의 견해는 “하디스”(무함마드 언행록)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복장에 관한 “하디스”는 많은데, 현실의 시각과 역사적 변천으로 본다면 이들이 여성 격리를 목적으로 만들어낸 전통으로 볼 수 있다.

이슬람 학문의 전통은 중세때 주로 바그다드나 카이로 같은 대도시에서 발달하였고 이 학문중 여성에 대한 생활규범은 도시에 거주하는 무슬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⁷⁷

이슬람중세 11세기경부터 이슬람법이 정리되고 법이 여성을 규제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활발한 여성의 이름은 역사에 나오지 않는다.

“베일”의 착용이 도시의 상류층 여성에서 시작한 것처럼 “베일”을 벗기자는 생각도 위에서부터 일어났다. 지금도 대부분 그렇지만 농촌지역, 사막의 유목민, 도시하층의 여성들은 별로 “베일”을 착용하지 않는다. 생활하는 데 불편하기 때문이다. 서양식 교육을 받고 서구식 사고를 갖고 있는 여성들이 “베일”을 벗고자 하는 운동을 일으킨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성의 “사적” 생활과 “공적”인 것에 관련된 문제에서 여성의 “베일” 착용은 사회학적으로 복잡한 여러 요인을 갖고 있다. 이슬람이 말하는 “사적” 생활과 “공적” 생활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밖에 나갈 때 “베일”을 착용하는 것이 여성에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베일” 착용도 지역, 사회계층, 연령, 학력, 기혼이나 미혼이나 등의 요인이 걸려있다. 또 최근에 들어서는 이외에 새로운 요소도 가미된다.

“베일”을 벗었던 여성들이 예를 들면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상징으로서 스스로의 선택으로 “베일”을 착용하는 현상도 있다. 이들 여성들은 넓은 의미에서 이슬람 여성으로서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상징으로 “베일”을 착용한다. 이슬람의 『보수성』이라는 말로 여성의 격리를 “베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앞에서 제시했지만 코란 4절 32장 외에는 “베일”이나 여성의 격리를 강제하는 언급은 없고 때와 상황에 따라 지켜야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베일”착용의 강제는 여성 격리의 강조이며 여성존중과는 여러 면에서 모순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이슬람의 근대 여성운동가들은 주장한다.

근대에 들어선 중동 이슬람사회는 서구문명의 충격을 받은 계몽가들이 지금까지 여성격리의 관행에 따라 집에 갇혀 있던 여성의 사회참여를 이슬람사회개혁을 위한 불가결한 요인으로 본다. 그러나 전통적 보수주의자들로부터 격한 반격을 받는다.

“무함마드 압드”(Mahammad 'Abauh)의⁷⁸ 이슬람개혁사상을 자유주의적 개명파의 입장에서 계승한 “카심 아민”(Qasim Amin)은 종래 “샤리아”적 사고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샤리아”를 현실에 입각하여 해석하고자 하는 노력을 『여성해방론』과 『신여성론』으로 나타내었다.⁷⁹ 그가 전력을 기울여 허물어뜨리고자 한 것은 여성격리의

77 Nieuwnhuijze, *Sociology of The middle East*, Leiden E.J. Brill, 1971. p.651.

78 Muhammad 'Abduh, 1849-1905. 이집트의 이슬람개혁사상가.

79 『여성해방론』(1899), 『신여성론』(1901), 이슬람윤리와 서구자유사상을 결합하고자 한 저서.

상징인 “베일”(히자브)의 관행이다. 그에 의하면 “히자브”란 협의로는 “베일”의 뜻으로 쓰여질 때가 많은데, 광의로는 신체의 치부(‘aura)라고 봐야한다는 전통적 관념에 따라 여성을 사회에서 격리시켜 집안에 가두어 두는 관행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해방은 “수푸르”(Sufur-“베일”을 벗긴다-라는 뜻)에서 비롯되며 대립관념이라했다.

“아민”에 의하면 당시 12세에서 14세에 이르는 여자는 벌써 “히자브”에 옮겨져 사회라는 걸무대에서 자취를 감추고 부친의 비호 아래 격리되다가 미래의 남편 손에 옮겨진다. “히자브”의 관행이 타파되지 않는 한 여성은 사회참가의 전제조건인 교육을 받을 수 없고 남성의 소유물처럼 취급되어 사회와 직접 관계를 맺지 않은 채 벽에 둘러싸여 일생을 보내야만 한다.

“히자브”의 피해는 여성이 결혼하여 애를 낳았다 하더라도 무지하기때문에 애들을 교육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히자브”의 폐지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는 요구에서 수행해야 하지만 이 경우 교육 그 자체는 부정하지 않아도 자기 집에 있어야 할 여자가 남자와 섞인다는 점에는 이슬람사회가 일반적으로 거부반응을 보였다. 지금도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여자를 남자와 격리시킨 채 교육을 시키는 나라들이 있다.

파키스탄의 이슬람 이론가 “마우두디”는⁸⁰ 이슬람 전통보수주의자들의 “베일”에 대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첫째, 남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고 여자는 평화와 기쁨의 천국으로서의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은 자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둘째, 여성은 집 밖의 일을 수행하기에는 적당치 않으며 신체적으로도 중노동이나 경제, 정치, 행정 등의 일에도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가정적인 일에 종사하여야 한다.

종교적 보수주의자들, 예를 들면 “하나피”파⁸¹ 법학자들은 여성에게는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그 이유로 여성에게 지성과 종교심이 결핍되었기 때문이라고한다.

인간은 유혹에 약한 존재라는 인식은 이슬람의 교리 근거에 있다. 자칫 잘못하면 야기될 남녀간의 성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 남녀 격리이며, 남성은 남성의 일을하고 여성은 여성의 일을 다하는 데 사회의 조화가 있다고 이슬람 전통학자는 논한다. 그러나 여성의 “베일” 착용은 지방적, 사회적 관습이지⁸² 이슬람의 강제 규정이 아니다.

“베일”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다. “베일”은 남성들로부터 보호이자 방패이며, 남성의 입장에서는 여성에 의해 표시되는 유혹의 위협을 “베일”이 막고 있다고 전통주의자는 해석하고 있다. 이슬람의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은 “베일”의 착용이 이슬람 여성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슬람사회를 분해시키며 종교를 생

80 Abul A'la Mawdudi, 1903-1980. 코란과 “순나”를 법원으로 하는 「이슬람국가」 건설을 주장. 「코란 주석」 등 다수의 저작 남김.

81 “하나피”(Hanafi)파. “순나”파 4법학중의 하나. “순나”파의 다른 3법학파에 비해 지역적 관행이나 학자의 개인견해에 관대한 것이 특징.

82 Anis Nirza, “Images of Women in Social and cultural Life”, *The Pakistan Times*(21, Sept.1984)

활과 분리시키려는 자들의 논의라고 반박하고 있다.⁸³

현대 여성운동가들은 “베일”로 상징되는 여성의 격리가 이슬람사회의 가부장적 제도에 대한 여성의 종속을 뜻하는 것이며, 이런 상징이 의미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여성을 도덕적으로 부패한 남성에게 노예화시키는 것이라고 논한다.

남성은 신에 헌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앞서 성의 유혹때문에 신에 대한 헌신 이상으로 여성에게 정열을 바친다. 신이 원하지 않는, 통제되지 않는 성이 야기시킬 지도 모를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성을 통제조정해야 한다고 이슬람 보수주의자는 말한다.

이들은 또 이슬람적 사회 틀 속에서 남성은 밖에서 사회적 역할을 책임져야 하고 여성은 가정에서 역할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⁸⁴

여성문제에 대한 코란해석과 이슬람관행을 둘러싼 논쟁은 그치지 않는다. 이슬람의 보수적 전통주의자들은 코란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이니 이에 따라 여성은 안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현대적 여성운동가들은 여성에 대한 코란의 규준은 법적 요구보다 윤리적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논한다. 그 이유는 코란이 주어진 한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기록된 것이니, 역사와 사회변화에 따라 여성에 대한 새로운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성의 격리관습은 “자할리아”시대의 남성 우월논리의 흔적이 코란에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남자는 여자의 보호자이다. 이는 알라가 한편을 다른편보다 우수하게 하였으며 그들의 재산을 사용하게함이다. 그래서 정숙한 여자는 순종하며 알라의 보호 아래 남편의 부재 중에도 지키노라. 너희들이 불충실하고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들에게 이를 훈계하고 침상에서 멀리하고 응징하여라.』⁸⁵ 남성이 여성을 지배한다는 이같은 여성관은 전 시대에서 내려온 원시감각의 흔적이다.

이슬람의 보수적 학자들은 위의 코란 구절로 남녀간의 유별을 생활기능으로 구별하였다고 본다. 남성은 여성보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뛰어나고 가족의 양식을 벌어들이니 감독의 지위를 누려야 함은 당연하다. 남성우위의 관념은 이슬람사회 질서의 바탕이라고 이들은 내세운다.⁸⁶ 코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의 말씀이며 법칙이므로, 코란 구절에 나타난 것처럼 여성이 남성에 복종하여야 한다. 남성이 여성에 대한 감독적 지위를 갖는 것은 가족의 명예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밖에서의 행동은 그녀 집안의 명예와 관계되는데 여성은 감정에 약하고 질서에 적용되는 훈련을 받는 능력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코란 4장 34절을 해석하고 있다.

이슬람의 “모더니즘”적 학자들은 여성의 위치와 관계된 코란의 언급은 법적 요구라기보다 윤리적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논한다. 코란은 7세기초 아라비아반도라는

83 Abul A'la Maudoodi, *Purdah*, Lahore: Islamic Publication Ltd, 1967, p.193.

84 Muhammad Mazheruddin Siddiqi, *Women in Islam*, Lahore: Institute of Islamic Culture, 1966, p.11.

85 코란 4:34

86 Abul A'la Maudoodi, *Op cit.* p.193.

주어진 시간과 한정된 장소에서 기술된 계시이기때문에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논한다.⁸⁷ 코란은 본질적으로 남녀는 평등하다고 본다. 『여자는 공정한 상태에서 남자와 동등한 관계를 갖고있다.』⁸⁸

이같은 취지의 코란구절은 많다. 근원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동일하며 (코란 4:1), 남녀 모두 자기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고 (코란 6:97),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를 구별하고 남성에게는 가부장적 권위를 부여하고 여성에게는 이와 상응하는 대접을 해준다(코란 2:228).

V. 결 론

코란은 이슬람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슬람의 역사적 전개와 함께 코란에 언급된 여성문제도 이슬람사회의 질서를 이룩하는 면에서 해석되어 여성의 지위가 향상화되었다. 이슬람이 바라는 요구는 인간이 신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신앙은 행위와 관련된다고 한다. 이슬람의 궁극적 요구는 종교적인 신앙과 마찰을 빚는 여러 일을 피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여성의 지위도 『신앙』과 『불신앙』이라는 측면에서 평가된다.

이슬람은 원칙적인 면에서 여성에 호의적이다. 코란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자힐리아”시대의 여성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를 이슬람은 개혁하여 여성의 지위를 상승시켰다. 그런데도 코란은 남녀유별관을 제시했다. 남성은 신체적 특성상 밖에서 일해 집안의 생계를 유지하고 여자는 안에서 가정을 꾸려나간다는 직분의 구별을 하였다. 남자에 대한 순종의 도리를 여자에게 구체적으로 내세워 (코란 4:34) 여자의 종속성을 강하게 드러냈다. 여기서 이슬람은 본질적으로 남녀평등에 회의적이라고 생각된다.

성인이 된 이슬람신도 여성들은 결혼이 장려된다. 결혼은 계약이며 여성은 상대방 남성으로부터 혼인계약금을 받고 결혼한다. 계약인 이상 이혼도 가능하다. 이슬람 이전 “자힐리아”시대에는 대개 신부가 될 여성의 의사는 문제되지 않았지만 이슬람은 이 상태를 대폭 시정하였다.

여성은 한 남편 밖에 가질 수 없지만 남성은 조건이 허락하는 한 4명의 처를 얻을 수 있다. 일부다처제에 관한 코란의 원리 취지와 실지의 관행 간에는 차이가 있고 문제점도 많다. 무슬림 여성은 같은 이슬람을 믿는 남성과의 결혼만이 허용된다. 기혼 여성의 경우 결혼해소 후 일정기간 동안 재혼을 위한 새로운 혼인 계약을 할 수 없다. 이 기간을 “잇다”라고 한다.

부부는 결혼으로 재산을 공유하지 않는다. 아내는 결혼으로 인해 손에 넣은 것, 또는 결혼생활중에 취득한 재산 소유권이 있고 이것이 처분될 때에도 독립적인 권리를 갖고

87 Fazlur Rahman, *Islam and Modernity*, Chicago: Chicago Univ. Press, 1984, pp.5-6

88 코란 2:228.

있다.

부부 상호간의 애정이 없어지고 불화가 지속되어 도저히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때에는 부부간의 이혼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혼을 용인하는 입장을 코란은 나타내고 있다. 명확한 이유가 있다면 남녀 모두 이혼을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혼인과 달리 한쪽의 혼인해소 의지만으로 성립된다는 점이다. 많은 경우 남성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선언하여 이혼할 때가 많다.

혼인성립의 계약사상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는 어느 쪽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계산을 넣은 계약체결이다. 정서적 요소가 없는 계약이며 여성에 대한 물질적 보증도 명확하다. 기본적으로 계약과 그 해소가 가능한 결혼형태가 존재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무슬림 여성의 지위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슬람은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고 보지만 이는 생활을 영위하는 데 남녀의 역할이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성의 주된 책임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먼저 가사에 전념하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다. 여성도 사회적인 책임, 권리, 의무를 가지나 여성으로서의 중요한 일은 가정에 있다는 것이다.

이슬람사회에서도 남녀 양성간의 불평등의 문제는 제기되고 있지만 이런 논쟁은 문화나 법률상의 문제로서, 신에 의해 확립된 인간본연의 관계, 남녀평등이라는 이슬람적 관점에서는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이슬람 보수주의자는 생각한다. 남녀간에는 그 역할과 책임이 다를 뿐이며 양성간의 우열의 차가 아니라 인생의 기본적인 일이나 사회요구에 적응하여 남녀간의 기능의 차이가 코란에 언급된 것이라고 한다.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분명히 선이 그어져 있다. 남성은 바깥 사회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고 공적 분야에서 활동해야 하며, 여성은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살며 가족의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요구된다. 여성은 가족 외의 남성과는 격리되어 엄격한 정절이 요구된다. 남녀유별관을 이슬람은 보이고 있다.

이같은 이슬람의 전통적인 여성관을 둘러싸고 전통적 보수주의자와 “모더니스트”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어난다. 특히 결혼과 이혼, 일부다처제의 문제, “베일”로 상징되는 여성격리, 여성의 재산권 등에 관한 것이 주된 논쟁이다. 보수주의자들은 코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이며 진리이니 누구나 이에 따라야 한다고 한다. 여성은 남성에 순종해야 한다. 순종은 여성의 정숙함을 보호받고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논한다.

이슬람 개혁주의를 내세우는 “모더니스트”들은 코란 안에 언급된 여성에 관한 문제는 법적 요구라기 보다 윤리적 측면에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한다. 코란이 주어진 시간과 한정된 장소에서 역사적인 제약을 받고 언급된 말씀이니 역사와 사회변화에 따라 여성문제도 새로운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논한다. 그들은 현대적 시각에서 불합리하게 보이는 가부장적 권위의 남성위주의 사회와 여성격리와 종속은 여성문제에 관한 코란의 구절들을 남성편의대로 해석하여 관행화된 것이라고 논박한다.

보수주의자들은 통제되지 않는 성때문에 야기될지도 모를 위험성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남성은 스스로를 자제하고, 여성을 통제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한다. “모더니스트”들은 여성에 대한 코란의 본래 취지는 남녀를 차별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나 가족 내에

서의 기능수행에 있어서도 남녀의 차별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사회는 남녀평등의 원칙하에 질서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실적으로 이슬람사회가 갖고 있는 남녀유별관은 내외법, 정숙관, 순종관이다. 그 윤리적 바탕은 “자힐리아”시대에 있었던 남성의 가부장적 권위를 일부 인정한 코란에 나타난 여성관에 있다.

무슬림 여성의 지위는 이슬람사회의 가부장적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이슬람은 다른 종교보다 자세히 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를 코란을 통해 밝히고 있다. 사회에서의 여성위치를 매기고 있다. 사회의 공적인 활동인 종교, 정치 및 경제활동은 남성이 행하며 여성은 사적인 가정 내에 맡은 바 역할을 행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보고 있다. 일생을 통하여 여성은 딸, 아내, 어머니로서의 역할로 친족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위를 갖는다. 이분법적으로 남성은 공적 분야에서, 여성은 사적 분야에서 제 기능을 다해야 하며 여기에 위치가 정해져 있다. 코란은 여성이 남성과 평등한 관계를 갖는다고 내세우면서도 역할과 기능면에서는 여성에게 남성에 대한 종속적인 위치를 부여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김용선

1983 「성 꾸란」 서울 박영사

Abul A'la Maudoodi

1967 *Purudah*, Lahore: Lahore Islamic Publication.

Anis Nirza

1984 “Images of Women in Social and Cultural Life”, *The Pakistane Times*(21 Sept. 1984).

Beck Keddie

1979 *Women in the Muslim world*, Chicago:Chicago Univ. Press.

Fazlur Rahman

1984 *Islam and Modernity*, Chicago:Chicago Univ. Press.

Maulana Muhammad Ali

1964 *The religion of Islam*, U.A.R. National Publication.

Muhammad Mzherddin Siddiqi

1966 *Women in Islam*, Lahore:Institute of Islamic Culture.

Nieuwnhuijze

1971 *Sociology of Middle East*, Leiden Brill.

Reuben Leby

1969 *The Social Structure of Islam*, London:Cambridge Univ Press.

Syed Amir Ali

1927 *A Short History of the Saracens*, London:Macmillan.

Al-Albani

1965 *Hijab al-Mar'ah al-Muslimah fil-Kitab wal-sunnah*, Beirut:Al-Maktab al-Islam.

Al-Sahih al-Bukhari

1971 *The Translation Arabic-English Meaning of Sahih-Al-Bukhari*, Medina:Islamic Univ. Press.

The Status of Women in Islam

Yong-Sun Kim

Since pre-Islamic times Arabian woman has been subject to her husband or nearest relatives. But the status of women greatly changed under Islam society although discrimination between man and woman made in pre-Islamic times still remains.

In Islam society woman is allowed to inherit from her husband or relatives and control her property at her will. As far as other aspects of women's life are concerned, the practices and traditions of pre-Islamic times still have an influence on the position of woman. Clearly the Koran adheres to the traditional view on woman as an inferior being(Koran 4,34).

Islam permits man polygamy: e.g., a man can have as many as four wives. But in fact Koran promotes that one man should have a wife. Being considered a social contract, marriage is only able to be performed with man and woman's mutual agreement. If a man wants to divorce, his wish is to be fulfilled by repeating his intention of divorce in public several times. But in case that woman wants to divorce, she can attain her purpose only after some conditions are satisfied. A divorced woman or a widow is allowed to remarry after some time passes.

Woman's wearing veil originated from the Koran is another testimony by which woman's status can be estimated. Veil was a symbol of distinctions between man and woman. Closely connected with the exclusion of woman from public life is the veil.

The traditionalists argue that woman should devote her entire life to keeping home by referring to the koran that man should take charge of his wife. They say that it is man's responsibility to earn his family's living because woman is unable to do outdoor works. The modernists claim that wearing of veil and woman's living in seclusion are not genuine Islamic idea and that the purpose of the Koran is to establish its own reasonable ethical norms.

The Koran says a great deal about the position of woman but most of them have been interpreted in such a way as means of socially restraining of woman or justifying man's right and his superior position. But woman's status in Islam does not merely depen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Koran. The traditional way of thoughts influence on their view on woman not less greatly than the Koran. In brief, the status of woman in Islamic society should be considered in terms of both the Koran and traditional views on woman.

김용선, 한국외대 아랍어과 교수

주소 : (121-250)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50-39

Tel : 336-6501(H), 961-4251(O)